

◀기쁜 우리 날들▶ 강냉이 튀겨 오던 날

용혜원



엄마가 군것질거리 마련하시느라
강냉이 한 소쿠리
튀겨 오시던 날입니다

오 남매는 마당에서 놀다가
"애들아 빨리 와서
강냉이들 받아라!"
부르시는 엄마 목소리에
쫓르르 달려 왔습니다

남자 삼 형제는 일제히
엄마 앞에 손바닥을 크게 펴고서는
길길대며 웃었습니다
뒤이어 오는 누이들의 손은 작아
분명히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재미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웬 일입니까
엄마 앞에 온 누이들은
치마를 넓게 펴들고
우리를 바라보며 훌쩍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뎀 그랬지 ▶ 안티프라민 연고
캡을 쓴 단정한 간호사 모습의 로고가 인상적이던 초록색 뚜껑의 양철용기를 열면 싸한 냄새가 나던 안티프라민. 근육통, 상처뿐 아니라 배 아플 때도 바르면 신기하게 낫던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수학여행가서는 잠자는 친구의 눈에 발라 놓고는 따라워하는 친구를 보고 서로 재밌어 하기도 했던 추억의 연고....
이제는 양철에서 플라스틱용기로 바뀌어도 마음속엔 언제나 초록의 동그라미로 남아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8권 4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1월 19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우슈비츠에서 건져낸 희망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체포된 후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곤 외투 안감에 껴매 놓은 원고 한 묶음뿐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조사하고 집필해 온 원고였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도착한 그는 그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에겐 아무것도, 누구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극한 상황 속에 있던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부딪혔다."

며칠 후 나치들은 죄수들의 옷을 강제로 수거해 갔고, 프랭클은 가스실로 보내진 한 수감자가 입던 옷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 기도서에서 뜯어낸 그 종이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기도문 "쉐마 이스라엘" 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발견한 그 글귀를 종이에 옮기기보다는 그대로 실천하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명저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 있다."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자로부터
도망하지 않으신다

◀인품따라 행하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을 아는 일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을 충고하는 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y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10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64(감사절)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308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정관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데살로니가전서 5:18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잊지 않는 감사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아름다운 성전을 생각하며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1,195 + 약정 \$50,000 + 교회 Saving A/C \$65,000 + 한화(W)30,000	총액:\$266.105
--	--------------

◆11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량	안내
29	양경배	이근평	본당:윤주야
5	이근평	이재영	임혜자
12	이재영	김교섭	현관:박일영
19	정관영	박일영	이광희
26	조용건	이광희	새교우:이근평, 장유진

◆11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5	월초새벽기도회(1) 여선교회(5).구역예배(10)
12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4)
19	추수감사주일
26	이삭줍기주일 수유수도원(29)

『교회 생활』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1. 교우소식

<이사> 김경천, 이수자 집사. 8 Rock Daisy Cre. Mangere ☎256-1833
<기도해주세요> 김선화 집사. 지난 주간에 무릎 수술. 완쾌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2. 금주 춘계 대심방

<21일(화)> 6구역(10시 부터) <24일(금)> 6구역(저녁 6시 부터)

3 세례식(예고) 12월 첫주일(3일). (유아세례는 12월 25일)

*세례 대상교우들께서는 구역장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후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식을 갖습니다.

4. 우리교회 성전건축을 위해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께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모아져 큰 기도함성이 됩니다.
그 우렁찬 기도에 천국문이 요동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금주 수요예배

*이번주 수요예배는 평양 “철골교회”의 예배 시청 후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6. 12개교회 축구대회<일시: 25일(토). 2일(토). 오전 9시부터>

*우리교회 축구단도 야심찬 마음 갖고 참가합니다(문의:이재영 집사)

7. 익투스,살롬 중창단 연합 찬양콘서트(김영길.배기웅.신경화.장혜선.정관영)

<25일(토) 저녁 7시. St George Church. Anzac St. Takapuna>

◀착한 시인들▶

꽃집에는 민들레꽃이 없습니다

안드레아 슈바르츠

꽃집에는
민들레꽃이 없습니다

그것은
팔 수 있는 꽃이
아닌가 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과 다정함
우정과 소중한 사람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생으로 자라나
한적하게 꽃을 피우고

마침내
자신을 향해
허리를 굽힐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요즘 물오른
라일락 향기에
멀미가 난다면,
장미의 화사함에
어지러움이 일어난다면
아마 사랑에 빠졌기 때문일 겁니다

들판 목정밭에
흔씨 품은 민들레도
보아 주는 누구 없대해도
제 자리 지킴이 사랑인양
가녀린 하얀 마음으로
오마지 않는 인기척 기다립니다.